

年代 불확실한 고려 후기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The Painting Style Analysis of Byunsangwha of the Scripts with
Uncertain Manufactured Era in Late Koryo Dynasty

권 희 경 (Kwon, Hi-Ky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및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
| 2. 年代 불확실한 「묘법연화경」 | 사경변상화 |
| 사경변상화 | 4. 年代 불확실한 기타사경변상화 |
| 3. 年代 불확실한 「대방광불화엄경」 | 5. 결 론 |

< 초 록 >

年代 확실한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을 행하였으므로 이를 근간으로 하여, 年代 불확실한 고려 후기 개인발원 사경변상화의 年代 추정을 하였다. 「묘법연화경」을 필두로 하여, 다음으로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의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사경의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을 행해 제작년대를 추정하였다.

要語 : 사경변상화, 변상화, 사경

< ABSTRACT >

The painting style of byunsangwha of scripts with certain manufactured era has been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manufactured era of the scripts with uncertain manufactured era was postulated in this paper.

At first the painting style of the byunsangwha of the script of Saddharmapundarika-sutra was analyzed, and the analysis of those of Buddhahadra- and Gandavyuha-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hkkwon@cu.ac.kr)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sutra were followed and lastly those of the other scripts were analyzed to postulate their manufactured eras.

Key words : byunsangwha of script, painting style analysis, script with uncertain manufactured era, late Koryo Dynasty

K C I

1. 서론

년대 불확실한 고려 사경변상화의 년대 추정은 년대 확실한 사경변상화의 양식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시도 하였다.

이미 년대 확실한 사경의 양식분석을 시도 하였으므로¹⁾ 이를 토대로 하여, 년대 불확실한 사경의 양식을 분석하여 제작년대를 추정하고자 했다.

먼저 「묘법연화경」부터 양식분석을 하고자 했으며, 다음에 「대방광불화엄경」 및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을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기타사경 변상화의 양식분석을 행했다.

2. 년대 불확실한 「묘법연화경」 사경변상화

2.1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妙法蓮華經」 제3권

감지은자, 절첩본, 31.2cm × 11.1cm, 변상화 감지금니, 21.1cm × 44.2cm.



1) 권희경, “고려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 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32집, 153-200.

이 사경변상화는 설법도 중, 여래의 佛顏의 윤곽선과 가슴의 三道, 손과 팔의 윤곽선에 홍색을 사용하고 있어, 일견할 때 충숙왕 전반기의 작품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공양왕 원년(1389)에 제작된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변상화에서 두발과 입술 등에 다시 채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이러한 채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문양의 양식은 공민왕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우왕 11년(1385)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과 같고 설법도의 보개양식도 공민왕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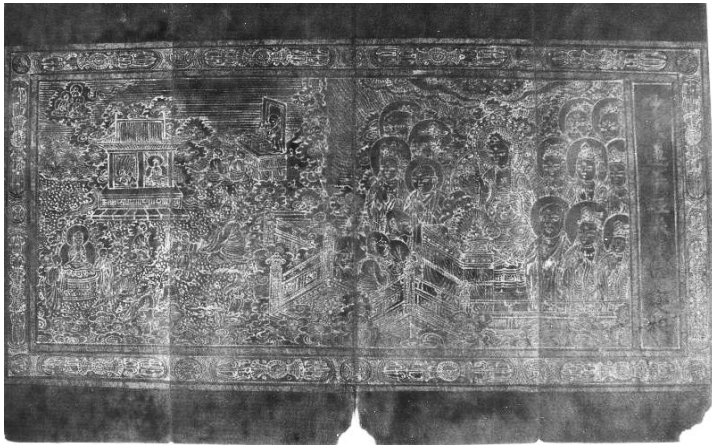
문양대의 양식은 오히려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이후 내소사본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미단으로 오르는 계단에 이미 3판의 화문이 그려지고 있어, 우왕 이후의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으며, 삼판의 화문이 그리진 나머지 공간에 파도문과 같은 문양으로 채운 것은 세종 4년(1422)의 광덕사본 「묘법연화경」들과 닮아 조선 초의 양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묘법연화경」 제3권의 내용 중 비를 피해 집으로 돌아가는 「약초유품」의 내용을 그린 가옥이 곡자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왕 이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경변상화는 공민왕대로부터 우왕, 혹은 조선 초까지 년대 추정 을 넓게 잡을 수밖에 없다.

2.2 동국대학교박물관 「묘법연화경」 제4권

상지은자, 절첩본, 33.7cm × 12.2cm, 변상화 상지금니, 22.7cm × 48.2cm.



이 사경은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 제5·6권과 한질로 보이나 「묘법연화경」 제5·6권은 앞뒤 표지도 없고 변상화도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이 사경은 표지화와 변상화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사경변상화는 전체적으로 여백이 많다.

사경변상화 곁에 기록되고 있는 표제도 은니로 쓰여 있어, 관심을 갖게 한다 가장자리 문양대의 금니선이 세선·태선-세선·태선·세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혜왕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가 제작된 이후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佛顔의 이마 윤곽선이 桃形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공민왕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에 오면 완전히 桃花形으로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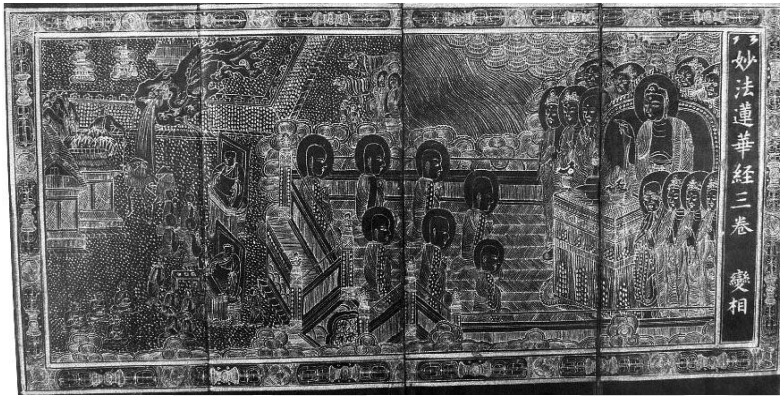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미단으로 오르는 계단에 3판의 화문이 그려져 있다. 계단에 3판의 화문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왕 이후의 작품이다. 그러나 충혜왕 복위 원년(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변상화에서도 제4권과 제7권에 나타나고 있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충혜왕 복위 원년(1340)에 계단에 3판의 화문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경변상화는 충혜왕 이후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제3권

감지은자, 절첩본, 34.1cm × 11.3cm, 변상화 감지금니, 22.1cm × 44.3cm.



이 사경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본5053번으로 현재는 내소사에 보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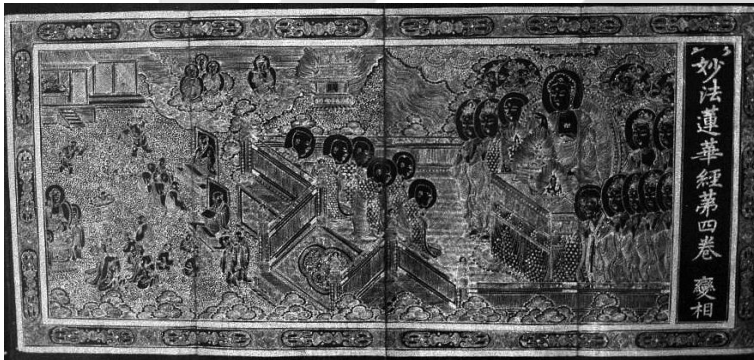
설법도의 양식이 거의 우왕 3년(1377)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여래의 경우, 육계가 높고, 두광과 신평의 속을 비우고 있는 점에서도 호림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보탁양식도 거의 같고, 수미단으로 오르는 계단에 삼판의 화문이 그려져 있는 점도 같다. 뿐만 아니라 삼판의 화문 속에 다시 연화를 그리고 있는 양식도 호림본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같으며, 삼화

엽이 이중의 금니선으로 그려지고 그 밖으로 다시 윤곽선이 그려져서 바탕색인 감색이 둘레를 이루고 있는 점이나, 수미단 위의 청문자들이 측면으로 그려지면서 속을 비운 두광을 두부의 측면에다 그린 점도 호림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의 양식과 같다.

향좌에 경전의 설화적 내용을 그린 부분도 상단의 경우, 담장 안에 두 개의 탑이 보이고, 탑 옆에 전각이 보이는 점이라든가, 용의 입에서 뿜어내는 빗줄기를 아래쪽에 도랑이를 쓴 두 인물이 비를 맞고 있는 점이나, 비를 피해 들어가야 할 가옥이 꼭자형인 점에 있어서도 호림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높은 의자에 앉아서 권본을 읽고 있는 2구의 인물과 교설을 듣는 청문자들에 이르기 까지 호림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의 양식과 같은 모티브로 그려지고 있어, 우왕대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2.4 日本 東北大學校 도서관 소장 「묘법연화경」 제4 권

감지은자, 절첩본, 35.2cm × 11.8cm, 변상화 감지금니.



이 사경변상화 역시 가장자리의 문양대에서 태선·세선-세선·태선·세선의

금니선 속에 금강저·갈마를 그려 넣고 있어,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에서 보여주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문양대 속에 그려진 금강저의 양식은 내소사 소장본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의 가장자리 양식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三鉢 양식에 있어서鉢의 반대방향으로 2개의 갈고리 형을 양쪽으로 그리는 있는 특징은 내소사 소장본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보다는 전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나, 금강저가 가늘고 긴 형상으로 바뀌고 있는 점과 가운데 그려진 연화의 주변에 네 개의 원문을 찍고 있는 양식은 내소사 소장본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와 거의 같다.

설법도의 주존인 여래의 두광 측은 비워져 있고, 신광은 세선으로 메워져 있는 점, 광배 바깥쪽으로 화염이 그려진 양식은 경주박물관 소장으로 공양왕 원년(1389)에 제작된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에 나타났던 특징으로 이후 내소사본 및 광덕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에 수용된 양식적 특징이다.

수미단의 계단 양식에 있어 삼판의 화문은 보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삼판이 그려진 나머지 여백을 운문으로 가득 메우고 있는 점도 내소사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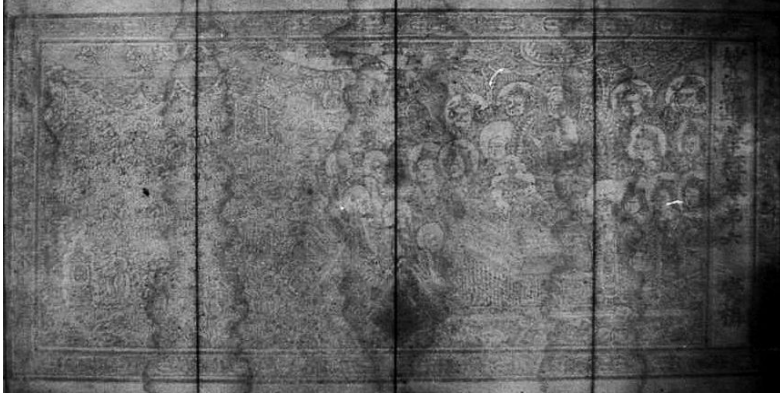
보탁 양식은 호림박물관 소장으로 우왕 3년(1377)에 제작된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이후, 조선 초까지 계속 되어 온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보탁에서 보여주는 특징인 장막 위에도 다시 주렴형의 수식을 늘어뜨린 양식을 따르고 있다.

두발의 윤곽선도 호를 여러 개 이은 듯한 곡선묘를 사용하고 있는 점, 운문과 지운문이 세 개의 동심문 혹은 와문을 궤산자형(山)형으로 쌓아 여백을 두고, 꽃 모양과 같은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점 등이 호림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로부터 시작되어 조선 초까지 이어진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우왕 이후로부터 조선 초까지로 제작년대를 내려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2.5 日本 東北大學校 도서관 소장 「묘법연화경」 제6권

백지금자, 절첩본, 31.9cm × 11.2cm, 변상화 백지금니, 21.4m × 44.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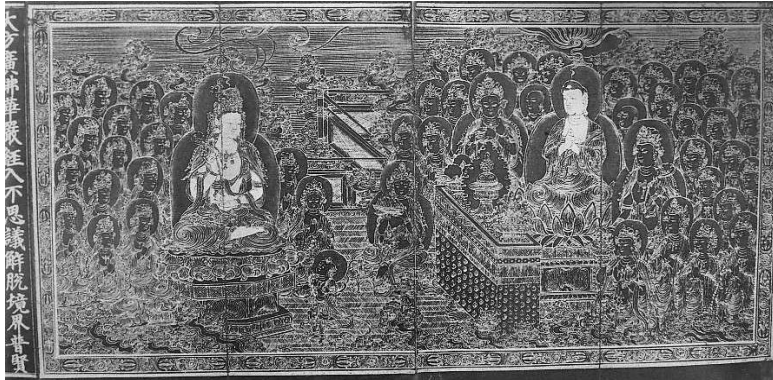
이 사경변상화는 아직도 수미단의 계단에 삼판의 화문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보탁양식도 장막에 원문이 세로렬로 그려져 있는 점 등이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장자리의 문양대에 태선·세선-세선·태선·세선의 금니선 속에 금강저·갈마를 그려 넣고 있는 양식적 특징이나, 외문을 3개 혹은 4개씩 엮어 붙여,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되고 있는 운문의 양식도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사경변상화에서 보여주던 양식과 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경은 충혜왕대의 작품으로 보인다.

3. 년대 불확실한 「대방광불화엄경」 및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사경변상화

3.1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감지금자, 절첩본, 31.1cm × 882.1cm, 변상화 감지금니, 19.1cm × 36.1cm.



호암미술관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의 경우, 발원문이 있으나 박락이 심해 년대 추정이 어려운 사경으로 특히 세련된 표지화와 변상화의 양식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년대 추정을 어렵게 하는 작품이었다. 이로 인해 표지화의 분석과 발원문의 연구 등에서 많은 혼란을 빚게 한 고려후기 개인 발원 사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면에 <文卿 畫>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사경 중에서 유일하게 사경변상화를 그린 畫佛師의 이름이 기록된 사경이다. 비록 현재 상태로서는 <文卿>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밝힐 수 없다할지라도 고려사경 중에서 화불사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닌 사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正一品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三重大匡 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은 바로 공민왕조로 넘어가서 三重大匡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으며,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충혜왕 2년조에는 宦者⁵⁾ 高龍普로 하여금 三重大匡 完山君 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 至大년간과 至正년간 양쪽에 모두 가능성이 있었지만, 공민왕대에 이르면 이미 이 사경발원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皇圖라든가, 혹은 李也之不花라는 元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나타난 년대 확실한 사경의 발원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단 至大년간의 작품으로 보았다.

그 후, 다시 표지화에 관한 연구⁶⁾에 열중 하면서 표지화 전반을 살피게 되었다. 그러나 표지화 연구에 관심을 두고 논문을 쓰면서 충렬왕대의 寶積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연화가 충숙왕 이후의 연화와 양식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 이 사경의 표지화와 충렬왕대에 제작된 寶積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표지화를 비교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표지화의 가장자리 문양대가 태선·세선-당초문-세선·태선으로 가운데 당초문이 들어가는 양식을 이 사경의 년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충숙왕 복위 3년에 제작된 호림미술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이나 유상옥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제 15권, 충숙왕 복위 6년에 제작된 호암미술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제 31권 등의 충숙왕 복위년간에 제작된 사경표지화가 이에 해당되었고, 더구나 연판 끝부분의 양식도 충숙왕 복위년간의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 31권과 같다고 판단되어, 역시 충숙왕 복위년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라고 보았다. 또한 표제를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선이 금니의 태선·세선으로 윤곽선으로 그려졌든가, 꽃잎의 윤곽선은 은니로 그려지고 있으나, 꽃잎 속을 메운 세선을 금니로 사용한 점이든가, 화심의 특징 등으로 이 사경표지화 분석에서 至正年間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표지화를 다시 분석하게 되었고, 이러한 표지화의 분석에서 寶積寺 소장의 「묘법연화경」이나 「미타

5) 환관.

6) 권희경, “년대 불확실한 고려사경의 표지화에 관한 연구Ⅱ,”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33-34.

경범행품대비심합부」의 표지화가 가장자리를 장식한 태선에 안팎으로 銀泥를 사용하고 있으나 태선·세선-당초문-세선·태선으로 장식되고 있다는 점에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고, 이러한 寶積寺本 「묘법연화경」이나 「미타경범행품대비심합부」의 표지화의 가장자리 문양대의 전통을 이 사경이 이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표지화에서 연화의 전체적인 형상은 다르지만, 화심의 꽃술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도 위에 금니 점열문으로 금니 세선으로 꽃받침과 연결한 특징은 이미 충렬왕대의 「묘법연화경」 변상화 양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연화문의 양식이 충숙왕대에 와서 바뀌고 있어, 반드시 후대의 작품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에서 최근 다시 이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표지화의 가장자리 문양대에 태선·세선-당초문-세선·태선으로 가운데 당초문이 들어가는 양식이 가장 먼저 나타난 충숙왕 복위 3년에 제작된 호림박물관의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이나 충숙왕 복위 6년에 제작된 「대방광불화엄경」 제31 권 사경변상화들을 이 사경변상화의 양식과 비교분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충숙왕 복위년간에 제작된 위의 두 사경을 이 사경변상화와 비교분석 해 본 결과 보탁이나 佛顏의 양식적 특징이 위의 두 작품과 같지 않고, 오히려 충렬왕대에 제작된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변상화 양식과 같다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여래나 보현보살의 佛顏은 윤곽선이 양쪽으로 일필로 이어지다가 턱 부분에 와서 끊어지면서, 별도의 호형을 사용하여 이중 턱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는 寶積寺本 「묘법연화경」이나 「미타경범행품대비심합부」의 「아미타경」 변상화 양식과 같았다.

또한 변상화의 가장자리 문양대 양식에서도 이러한 양식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변상화의 문양대 양식에 나타난 금강저의 양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다. 금강저 가운데 나타난 원화의 양식이 日本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닮았고, 삼고의 양식은 日本 羽賀寺本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과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려후기 사경변상화에 있어서 가장자리의 문양대 양식은 충숙왕 복위년간을

전후하여 확실한 양식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충숙왕 복위년간의 세 작품인 충숙왕 復位 3년(1334) 유상옥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과 같은 해에 제작된 호림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충숙왕 복위 6년(1337)에 제작된 호암미술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의 경우, 가장자리의 금강저 양식이 삼고와 반대방향 양쪽으로 갈고리형의 鈎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 삼고의 양식이 그 이전의 양식과는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이후 고려 말 조선 초까지 계속적인 양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호암미술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에서는 아직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역시 至大年間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3.2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7권

감지은자, 절첩본, 33.8cm × 12.2cm, 변상화 감지금니, 25.9cm × 28.6cm.



이 사경은 표지에 나타난 표제에서 이미 주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주본 화엄경 7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경변상화는 2페이지에 걸쳐 그려지고 있는데,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聖衆이 그려지고 있다.

여래의 佛顔이나 머리모양은 거의가 충렬왕 20년(1294)에 제작된 日本 宝積寺 소장 京都國立博物館 기탁품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제7권 배면에 사서(寫書)된 「미타경범행품대비심합부」의 「아미타경」 변상화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두발에 채색을 흐리게 하는 담채기법(曇彩技法)을 사용한 점과 머리의 윤곽 선을 곡선묘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는 거의 같은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래의 무릎 형상과 가사의 양식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보타의 양식에 있어서나, 운문의 양식이 충숙왕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나 충숙왕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 양식에 더 가깝다. 보타의 경우, 장막이 이중의 점원문으로 나타난 부분은 「미타경범행품대비심합부」의 「아미타경」 변상화와 거의 같으나 이중으로 늘어진 수식은 이 사경변상화가 훨씬 더 세련된 편이다.

뿐만 아니라 표지화의 양식은 충렬왕대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⁷⁾ 물론 충숙왕대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20년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 사경변상화만으로 볼 때는 이 작품을 충숙왕대의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충렬왕대 혹은 늦어도 충선왕대의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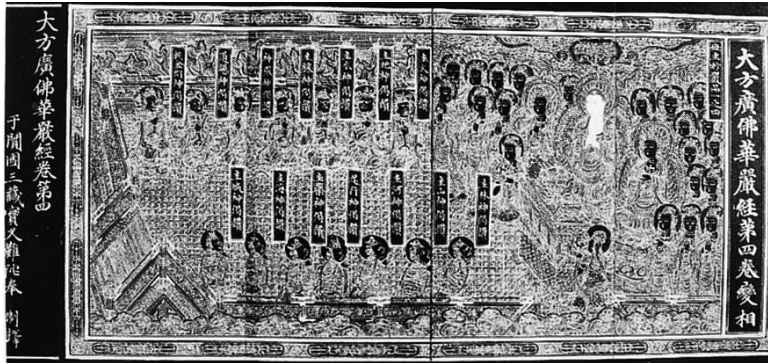
여래의 佛顔 양식이 충렬왕대의 작품과 거의 같고, 머리부분에 담채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충숙왕 이후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충렬왕 말기 혹은 충선왕대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日本에 유존하는 4권의 周本 「대방광불화엄경」 제4권, 제35권, 제36권, 42권>

7) 권희경 「년대불확실한 고려사경의 표지화에 관한 연구(II)」, 『書誌學研究』, 書誌學會,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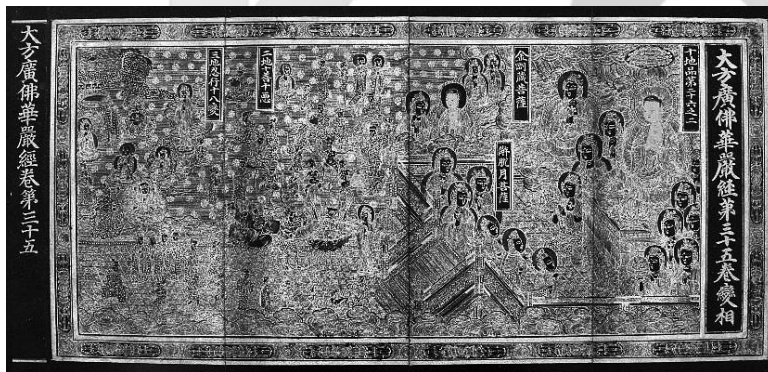
3.3 日本 徳川黎明會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4권

감지금자, 절첩본, 31.1cm × 10.9cm, 변상화 감지금니, 20.9cm × 44.1cm.



3.4 日本 大和文華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5권

감지금자, 절첩본, 30.8cm × 10.9cm, 변상화 감지금니, 20.8cm × 44.1cm.



3.5 日本 大和文華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6 권

감지금자, 절첩본, 30.9cm × 11.1cm, 변상화 감지금니, 20.8cm × 44.3cm.



3.6 日本 太山寺 소장, 大阪市立美術館 기탁품 「대방광불화엄경」 제 42 권

감지금자, 절첩본, 30.8cm × 10.9cm, 변상화 감지금니, 20.7cm × 44.1cm.



이들 도합 4권의 「대방광불화엄경」은 표지화의 독특한 양식으로 인해 한 질의 고려사경 「대방광불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방광불화엄경」 제4권은 德川黎明會 소장품으로 德川美術館이 소장하고 있고, 「대방광불화엄경」 제35권·제36권은 大和文華館 소장하고 있으며, 「대방광불화엄경」 제42권은 太山寺 소장으로 大阪市立美術館에 기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4권의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들은 년대를 확인 할 수 있는 발원문이 없어 확실한 년대를 알 수 없다.

이들 사경들은 佛顏과 佛의 가슴 윤곽선, 손의 윤곽선 등이 분홍으로 칠해져 있어 일단은 충숙왕대의 작품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경변상화의 가장자리의 문양대 양식이 바깥쪽으로부터 태선·세선-세선·태선·세선의 양식으로 그려져 있어, 이미 충숙왕 2년(1315)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나 충숙왕 12년(1325) 日本 羽賀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는 다른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운문과 운문의 양식이 충숙왕 복위 6년(1337)에 제작된 호암미술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 31권과 양식적으로 닮았다. 특히 지운문의 양식이 셋 혹은 넷씩 엉겨 붙은 듯이 그려져,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 되고 있는 점이나, 운문의 바깥쪽에 여백을 두고 가장자리에 다시 파상문으로 테두리를 두른 점에서도 충숙왕 복위 6년(1337)의 호암미술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 31권의 양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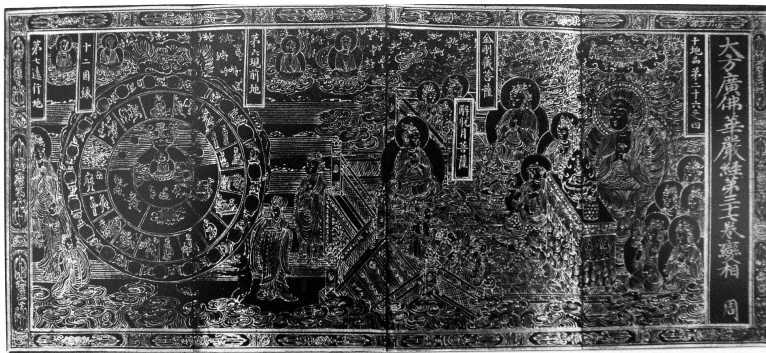
보개의 양식도 충렬왕대에는 여래에 비해 상당히 크게 그려지던 것이 충숙왕대에 이르러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에서는 보개의 아래 부분만 보이게 그려진다. 이러한 충숙왕대 초기의 보개에 비해 이들 네권의 「대방광불화엄경」의 보개는 전체적으로 들어나게 그려지고 있으나, 아주 작게 그려지는 양식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보택의 표현은 오히려 충혜왕 복위 원년(1340)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같다. 뿐만 아니라 수미단 난간 벽의 문양도 충숙왕 초기에 종선으로 해결 하는 것과는 달리 화문으로 그려져 양식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 도합 4권의 「대방광불화엄경」은 충숙왕 복위년 간으로부터 충혜왕 복위년간의 작품으로 추정 할 수 있겠으나, 佛顏의 윤곽선, 가슴, 손의 윤곽선이 분홍으로 칠해진 점이나, 두발이 코발트색으로 칠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채색에 관심이 많던 충숙왕대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시대가 내려온다고 해도 충숙왕 복위년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

3.7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7권

감지은자, 절첩본, 30.5cm × 15.2cm, 변상화 감지금니, 19.2cm × 43.4cm.



이 사경은 변상화 앞에 쓰여진 표제 아래쪽에 卍자가 보여, 주본 「대방광불화엄경」 제37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에는 6개의 명찰이 보이는데 향우의 구석에 「第十地品第二十六之四」라고 쓴 명찰이 보이고, 제2페이지에는 「금강장보살」과 「해탈월보살」이라는 명찰이 보이고, 제3페이지에는 「第六現前地」라는 명찰이 보이고, 제4페이지에는 「十二因緣」 「第七遠幸地」라는 명찰이 보인다. 이러한 명찰들로 봐서 十地중에 「第六現前地」 「第七遠幸地」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좌에는 향로와 공양주머니가 양쪽에 놓여 있는 보탁을 앞에 둔 비로자나불이

지권인을 하고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보살성중이 그려져 있다. 비로자나불의 위쪽으로는 보개가 있고 보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연화가 그려져 있다.

비로자나불의 바로 곁으로 다른 보살들보다 좀 더 크게 그려진 보살이 보이는데 「금강장보살」이라는 명찰이 있어, 설법자인 「금강장보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강장보살을 향해 앉은 1구의 보살 곁에도 「해탈월보살」이라는 명찰이 보여, 질문자인 「해탈월보살」임을 알 수 있다.

「금강장보살」향좌로 산화 속에 2구의 여래가 그려져 있고, 「제6현전지」라는 명찰향좌까지 산화는 계속되고, 「12인연」 명찰의 좌우로 여래가 4구 그려져 있다.

이어서 4페이지 상단 구석에 「제7원행지」라는 명찰이 보인다. 그 아래쪽으로 12인연의 윤회를 나타낸 원판이 그려져 있다.

양식적인 특징 중, 여래의 佛顔에 있어서 이마선의 표현은 충렬왕대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제1권의 변상화양식과 같으나, 머리의 윤곽선을 곡선묘로 그린 점은 충숙왕 2년(1315)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충숙왕 12년(1325) 日本 羽賀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 및 충숙왕 복위 3년(1334) 유상옥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 15권의 변상화양식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운문에서는 외문이 3개 혹은 4개가 한 덩어리로 뭉쳐 그려진 점은 충숙왕 복위 년간의 세 작품, 충숙왕 복위 3년(1334) 유상옥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 15권, 충숙왕 복위 3년(1334)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충숙왕 복위 6년(1337) 호암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 31권과 같다. 그러나 이들 충숙왕 복위년간 작품들에 있어서 운문은 3개 혹은 4개가 한 덩어리로 뭉쳐 그린 후에 여백을 두고 다시 운문과 같은 모양으로 테두리선을 그리고 있는데 비해 이 변상화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문양대에 나타난 금강저양식은 삼고가 가운데로 모여 있는 형상과 삼고의 반대편으로 두개의 갈고리형이 양쪽으로 그려지게 점을 나타내고 있어, 충숙왕 復位 3년(1334)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충숙왕 복위 6년(1337) 호암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

엄경」 제31권과 같아 충숙왕 복위년간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수미단을 오르는 계단의 양식은 오히려 충숙왕 2년(1315)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충숙왕 12년(1325) 日本 羽賀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의 계단양식과 같고, 보타 양식은 충숙왕 2년(1315)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충숙왕 12년(1325) 日本 羽賀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및 충숙왕 복위 3년(1334) 유상옥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의 변상화양식과 같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이 사경변상화는 충숙왕대에서 충숙왕 복위년간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8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

감지금자, 절첩본, 28.3cm × 758.2cm, 변상화 감지금니, 22.3cm × 55.3cm.



이 사경은 배면에 주필(朱筆)로 광덕사(廣德寺)라고 적혀 있어, 광덕사에 보관되어 오던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는 내표제와 곁에 붙여서 역시 두 줄의 세선으로 구획을 만든 세로장방

형 속에 「佛不思議法品三十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부사의혜탈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제47권에는 부사의혜탈품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

향우에는 수미단 위에 보탑을 앞에 둔 비로자나불과 2구의 협시보살이 그려져 있고, 협시 이외에도 5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비로자나불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聖衆보살들이다. 비로자나불의 향좌의 협시 옆으로 거의 비로자나불과 같은 크기로 정면 향의 보살이 있는데, 이는 청연화장보살이다.⁸⁾ 비로자나불의 두광 위쪽으로 보개가 보이는데 일부가 비로자나불의 두광에 가려 있는 형식으로 그려져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한 겹쳐 그리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개를 중심으로 연화가 그려져 있다.

향좌에는 노사나불이 그려져 있는데, 주변은 산화와 운문으로 가득 차 있다. 구름위에 5구씩의 여래중이 노사나불의 상부에 1군, 향우·향좌에 각각 3군의 화불이 그려져 있다. 향우·향좌에 각각 3군의 여래중이 타고 있는 구름 아래쪽은 집선곡선묘로 꼬리처럼 그려져 다음의 여래중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사경변상화 역시년대 추정이 어려운 사경 중에 하나이다.

여백이 많으며, 정도를 나타내는 산화의 표현은 확실한 6판의 화문을 나타내고 있으며, 운문의 표현은 충숙왕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에서 보여주는 운문양식과 거의 같으며, 광배의 가장자리에 연화의 끝부분을 그린 두광과 신광의 양식 및 수미단의 난간양식도 역시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변상화양식과 같다.

그러나 아직도 보개가 크게 그려지는 점이나, 여래의 불안 중, 이마의 윤곽선이 하트형을 거꾸로 놓은 듯이 가운데가 들어가게 그려진 점은 충렬왕 20년(1294)에 제작된 日本 宝積寺 소장본 京都國立博物館 기탁품인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문양대의 양식에 있어서 문양을 감싸고 있는 안팎으로

8) 皆悉具足, 承佛神力, 告蓮華藏菩薩言, (하략).

그은 금니선은 세선의 이중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양대에 나타난 금강저 양식에 있어서 삼고가 가운데로 모여 있고, 이러한 삼고의 반대편으로 두개의 갈고리형이 양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점은 년대 확실한 사경 중에서 충숙왕 복위 3년(1334)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과 충숙왕 복위 6년(1337)에 제작된 호암미술관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에서 처음 나타나는 양식이다.

또한 보타의 양식은 조선 세종 4년(1422)에 제작된 마곡사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광덕사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및 동국대학교박물관)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사경변상화의 설법도 속에 그려진 보타 양식과 같다. 그러면서도 수미단으로 오르는 계단의 양식은 상하계단에 사선을 엇갈리게 그려 처리한 점은 충숙왕 복위 6년(1337) 호암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 변상화에서 보여주는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년대를 가늠할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해인사 소장 周本 「화엄경」의 목판본 변상화 중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의 변상화 양식과의 비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향우의 설법도와 향좌의 노사나불과 주변의 여래중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모티프나 스타일이 해인사본 목판사경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심지어는 보타의 양식마저 해인사 소장인 周本 「화엄경」의 목판본 변상화와 같다.

이 해인사 소장 周本 「화엄경」의 목판 변상화에 있어서 보타양식이 같은 「佛不思議法品三十三」임에도 불구하고 보타가 같은 양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¹⁰⁾을 감안할 때, 이 사경변상화에서 나타나는 보타와 해인사본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의 목판변상화의 보타가 같다는 것은 바로 같은 양식의 사경변상화를 저본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9) 장충식, 「高麗寫經版畫의 世界」 亞細亞文化社, 1982, 도판 46.

10) 물론 해인사 소장 周本 「화엄경」의 목판 변상화 제47권은 「佛不思議法品三十三之二」라는 명칭으로 「화엄경」의 목판 변상화 제46권은 「佛不思議法品三十三之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같은 「佛不思議法品三十三」이라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 사경변상화의 보타양식이 해인사 「大方廣佛華嚴經」 판화 제46권 같은데 같은 한 절의 판본 제47권의 보타양식과는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해인사 본인 사간장경의 판본 「대방광불화엄경」이 과연 언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고, 대개 13세기 이후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¹¹⁾

또한 이 변상화는 여백이 많고, 산화의 표현이 꽃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자리의 문양대에 있어 문양을 감싸고 있는 안팎의 선이 이중의 세선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13세기 후반 늦어도 14세기 초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충렬왕 20년(1294)에 제작된 日本 宝積寺 소장본으로 京都國立博物館 기탁되어 있는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에서도 이미 문양대의 이중선이 태선과 세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할 때는 13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시대를 올려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인사 사간 장경인 판본 「대방광불화엄경」의 변상 판화에서는 운문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운문의 양식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경의 운문이 충숙왕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에서 보여주는 운문양식과 같다는 점은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양식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광배의 가장자리에 나타난 연화의 끝부분을 그린 두광과 신광의 양식 및 수미단의 난간양식이 또한 大乘寺 및 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변상화양식과 같다는 점에서는 충렬왕 말기 혹은 충선왕대 까지 시대를 내려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양대에 나타난 금강저의 양식에 있어서가 삼고가 가운데로 모여 있고, 이러한 삼고의 반대편으로 두개의 갈고리형이 양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점은년대 확실한 사경 중에서 충숙왕 복위 3년(1334)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과 충숙왕 復位 6년(1337)에 제작된 호암미술관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 제31 권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충숙왕대로 까지 내려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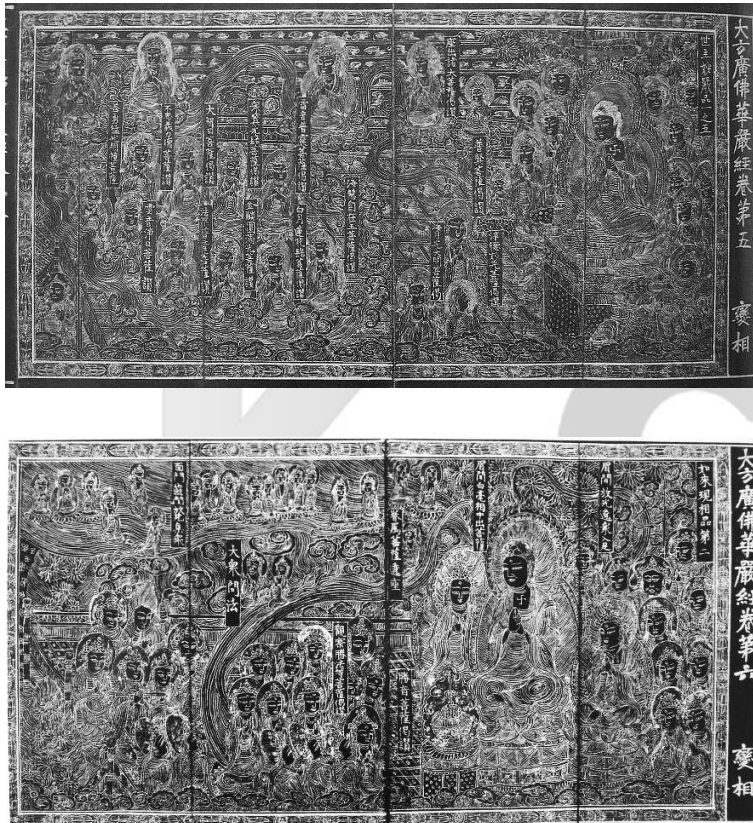
보타의 양식의 양식이 조선 세종 4년(1422)에 제작된 마곡사본(국립중앙박물관

11) 앞의 글, 「高麗寫經版畫의 世界」 14.

관 소장) 광덕사본(국립중앙박물관소장 및 동국대학교박물관) 「묘법연화경」 7권 본 1부의 사경변상화의 설법도 속에 그려진 보타 양식은 이 사경변상화를 통해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이러한 보타 양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9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5권·제6권

감지은자, 절첩본, 30.9cm × 10.4cm, 변상화 감지금니, 20.1cm × 41.3cm.



이 두 점의 사경변상화는 「대방광불화엄경」 제5권·제6권이 전면과 배면으로 합본되어 사성되어 있어서, 변상화 역시 전면과 배면으로 그려져 있다

제5권의 사경변상화는 주존인 비로자나불의 두발에 금니로 채색되어 있고, 보살과 여래의 두광에도 금니로 채색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제6권은 비로자나불의 두발도 제5권보다 금니의 채색에서 曇彩의 사용이 보이고, 보살들의 두광의 윤곽선 안쪽으로도 담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특징은 충숙왕 복위 원년(1332)의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의 「묘법연화경」 8권본이나 충숙왕 복위 3년(1334)의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의 보살과 성중의 양식과 같다.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문양대의 금강저 양식은 충숙왕 복위 3년의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이나 충숙왕 복위 6년의 호암미술관의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과 닮았다.

운문의 양식 역시 3개 혹은 4개의 운문이 한 덩어리로 영겨 있는 형상으로 그려지며, 이러한 운문덩어리 위로 일정하게 여백을 두고, 그 위에 꽃모양으로 테두리를 표현한 점은 충혜왕 복위 원년(1340)에 제작된 鍋島報效會 소장본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같다.

그러나 제5권의 보타 양식은 충숙왕 2년(1312)의 日本 天倫寺 소장이나, 충숙왕 12년(1325)의 日本 羽賀寺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양식을 이어 받은 충숙왕 복위 3년(1334)유상옥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의 양식과 같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경은 충숙왕대 특히 충숙왕 복위년간의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사경에서 변상화의 문양대 상하와 사경의 상하배선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 두고자 한다.¹²⁾

12)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를 집필 할 당시 이 사경변상화를 견학 했을 때는 이점에 유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호림박물관측에 사경들을 견학 할 수 있도록 부탁 했으나, 거절 당해 이 사경변상화를 주의 깊게 조사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10 호암미술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제5권

감지금자, 절첩본, 44.4cm × 19.6cm, 표지 감지금·은니.



이 「大方廣佛華嚴經」 제15권의 사경변상화의 모티브는 충숙왕 복위 3년(1334)에 제작된 유상옥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의 사경변상화와 같으며, 운문과 가장자리 문양대의 금강저 양식도 유상옥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의 사경변상화와 같다. 그러나 보게나 보타 양식은 충혜왕 복위 3년(1340)에 제작된 鍋島報效會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같다. 뿐만 아니라 수미단의 난간 양식은 오히려 충숙왕 2년(1315)에 제작된 天倫寺 소장의 「묘법연화경」 제3권부터 제7권까지의 양식과 같아 우왕 이후의 작품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전체적인 양식을 종합 해 볼 때, 이 사경은 충숙왕 복위년간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11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2권

상지금자, 절첩본, 30.8cm × 10.6cm, 변상화 상지금니, 19.5cm × 42.4cm.



이 「대방광불화엄경」 제12권은 내서에 역자가 동진(東晉)의 인도승 三藏佛跋陀의 번역임을 밝히고 있어 晋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는 가장자리의 문양대에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에서 보여주던 특징인 태선·세선-세선·태선·세선의 금니선 속에 금강저·갈마를 그려 넣고 있는 鍋島報效會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그러나 문양대 속에 그려진 금강저의 三鉢 양식에 있어서 鉢의 반대방향으로 2개의 갈고리 형을 양쪽으로 그린 점에서는 충숙왕 복위년간의 양식적 특징을 따르고 있다.

운문은 호림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운문양식과 같이 와문을 상하 좌우 4개씩 쌓아 그 위에 여백을 두고 꽃 모양의 곡선묘로 테두리를 두르는 형상을 하고 있고, 수미단을 오르는 계단 양식도 우왕대에 제작된 호암박물관 소장본 「묘법연화경」 7권본 1부나 공양왕 원년(1389)에 제작된 경주박물관의 「묘법연화경」 제3권 사경변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계단은 사라지고 향우에 일부가 생략된 3판의 화문을 그리고 나머지 여백을 다시 화문으로 채우고 있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으로 대개 우왕대의 작품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경이 우왕 이후라고 해도 조선초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공양왕 원년에 제작 경주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 제 3권부터 와문형으로 그린 운문을 퇴산자형으로 세 개씩 쌓고, 그 위에 여백을 두고 곡선묘

의 테두리를 두 번 두르는 특징을 보여 주는 것과는 달리 이 사경변상화에서는 운문의 양식이 아직도 와문으로 그려진 운문이 3개 혹은 4씩 한 덩어리로 엉겨 있는 형상이라는 점에서 우왕대의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3.12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2 권

감지은자, 절첩본, 세로 31.3cm, 가로 11.1cm, 표지 감지금·은니.



이 사경 역시 60화엄 晋本華嚴이나, 앞의 日本 根津美術館과는 변상의 내용과는 다르고 명찰도 보이지 않는다. 고려사경 변상화가 같은 시기에 같은 경전을 사경하여도 변상화는 전부 같은 패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경변상화이다.

가장자리 양식은 위에서 고찰한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 12권의 양식과 동일하다.

가운데 비로자나불의 경우 두광은 파상문으로 가득 채우고 신광은 집선파상문을 등간격으로 그리고 있어, 국립박물관 소장 덕수궁 2470의 우왕 11년(1385)에 제작된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사경변상화 여래의 두광 및 신광 양식과 같다.

이에 비해 양협시 보살의 경우, 두광에는 아무 문양도 그려 넣지 않아, 바탕의 감색이 그대로 들어나고, 신광에는 집선파상문을 등간격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는 호림박물관 소장의 우왕 3년(1377)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사경변상화 여래의 두광·신광양식과 같다.

운문의 양식도 호림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운문양식과 같이 좌문을 상하 좌우 4개씩 쌓아 그 위에 여백을 두고 꽃 모양의 곡선묘로 테두리를 두르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보살중도 신광은 그리지 않고 두광을 윤곽선만 그리고 있어, 바탕색이 그대로 들어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왕 3년(1377)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의 양식이나 우왕 11년(1385)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의 양식과 같아 이 사경변상화는 우왕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단에 그려진 산화의 경우 세선의 횡선 위에도 화문을 크게 그린 점은 충정왕 2년(1350)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神衆合部」의 전면에 그려진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의 산화양식과 같고, 가운데 그려진 보현보살의 경우, 두광은 속을 비우고, 신광은 집선파상문을 등간격으로 그리고 있는 점에서도 「대방광불화엄경신중합부」중 전면에 그려진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과 같아 충정왕 이후, 공민왕대로 시대를 올려 잡을 수도 있겠으나 운문의 양식이 공민왕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경우, 3개 혹은 4개씩 엮여있는 운문이 여백을 두고 윤곽선을 운문형태에 따라 그리고는 있으나, 그 형태는 아직도 단순 호형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 사경변상화의 운문이 여러 개의 호형을 연결시킨 것과 같지 않다.

이러한 운문의 형상은 우왕 이후의 양식이므로 이 사경변상화는 역시 우왕대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47 권

감지금자, 절첩본, 33.2cm × 11.1cm, 변상화 감지금니, 21.7cm × 43.9cm.



이 사경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분류 덕 1977로 표기된 작품이다. 원래 덕수궁 소장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 첫머리에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七卷變相」이라고 쓰고 그 아래로 周자가 쓰여 있어 80화엄경의 제47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의 가장자리는 안팎의 금니선에서 바깥쪽으로부터 태선·세선-세선·태선·세선 속에 금강저와 갈마를 그려 넣는 양식이 시작 하는 것은 년대 확실한 사경에서는 충혜왕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변상화에서부터이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일단 충혜왕 이후의 작품으로 볼 수 있겠으나, 문양대에 나타난 금강저의 양식에서 삼고가 가운데로 모여 있는 점이나, 삼고의 반대편으로 두개의 갈고리형이 양쪽으로 그려지게 접은 충숙왕 복위년간의 두 작품과 충숙왕 복위 3년(1334) 호림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충숙왕 복위 6년(1337) 호암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제 31권과 같이 충숙왕 복위년간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운문의 양식은 와문이 상하좌우로 4개씩 엮여 붙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형상과 여백을 두고 운문의 형태와 같은 테두리를 한 번 더 그리는 형상은 공민왕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사경변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설법도의 특징 중, 여러의 모습에서 이마선이 도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도 공민왕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7권본 1부와 공민왕 6년(1357)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상권의 변상화에서 보여주는 여래의 佛顔 양식과 같다.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쪽 들어가게 그려진 턱도년대 확실한 사경 중에서 공민왕대의 두 종류의 사경에서 보여주는 양식인데, 이 사경변상화에서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개의 양식이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한질의 사경으로 착각할 만큼 닮아 있어, 이 사경은 공민왕대의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3.14 日本 徳川美術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59권

감지금자, 절첩본, 31.3cm × 11.1cm, 변상화 감지금니.



이 사경은 내서에 역자가 동진(東晉)의 인도승 三藏佛馱跋陀라는 기록이 있어, 진본 「화엄경」 제59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해도 변상화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晋本 「화엄경」 제59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변상화는 선재가 덕생동자와 유덕동녀에 인도되어 미륵보살에게로 와서 구법 할 때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미륵보살이 118가지의 비유를 들어 보리심의 공덕을 말 한 후¹³⁾, 오른 손을 앞으로 내어 손가락을 텅기자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리니¹⁴⁾ 미륵이 그 누각 속으로 들라하여 그 명을 따라 선재동자가 들어가자 문은 곧 닫혔고, 그 궁전에는 광대하기 한량없는 허공과 같은 크고 아름다운 전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그 전각에 들어간 것에서 바로 대각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入法界品之十六」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도 本本 제59 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의 위쪽으로는 금니의 장방형 구획 속에 기록된 4개의 명찰이 보인다. 변상화의 제일 첫머리에 「入法界品之十六」라고 기록된 명찰이 보이고, 그 다음 제2페이지 끝에 「彌勒讀菩提心」이라는 명찰이 있고, 제3페이지에는 「彌勒彈指開門」이라는 명찰이 있으며, 제4페이지 향좌 구석에는 「善財入大樓閣」이라는 명찰이 보여, 이로서 충분히 「입법계품」16을 나타낸 명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식적인 특징은 가장자리의 금강저 양식에서 鉢의 양식이 충숙왕 복위년간의 특징인 三鉢가 가운데로 모여 있다는 점이나, 삼고의 반대방향에 두개의 갈고리 형이 양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점이 양식적으로 같아 충숙왕 복위년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운문과 지운문에 있어서 외문 혹은 원문이 3개 혹은 4개씩 뭉쳐져 하나로 나타나며, 이러한 운문 덩어리 주변과 운문과 운문 사이를 집선호문으로 그리고 있는 점, 운문과 지운문의 맨 바깥쪽으로 여백을 두고 다시 운문의 형태와 같은 테두리 선을 한 번 더 그림으로써 대단히 장식적인 운문이 된 점 등이 공민왕대의 운문 양식과 같으며, 정토의 표현에 있어서도,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신중합부」 중, 전면의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의 정토를 나타내는 산화의 표현이나

13) 爾時, 勒菩薩摩訶薩, 如是秤數善財童子, 種種功德, 令無量百千衆生, 發菩提心已, 告善財言.(후략 - 이후 보리심은 비유가 이어지고 있다.) 猶如種子, 猶如良田, 猶如大地, 猶如大風, 猶如淨日, 猶如淨目, 猶如大道, 猶如正濟, 猶如大車, 猶如門戶, 猶如宮殿, 猶如園苑, 猶如舍宅, 猶如慈父, 猶如慈母, 猶如乳母, 猶如善友, 猶如君主, 猶如帝王, 猶如大海, 猶如須彌山 등의 비유를 들고 있음.

14) 時, 彌勒菩薩, 前指樓閣, 彈指出聲, 其門即開, 命善財入

배면의 「대방광불화엄경세주묘엄품」의 아래쪽의 정토 양식을 그대로 따른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과 같이 양 갈래로 찢어진 듯이 양쪽의 선이 짧게 그려진 점이 같아 공민왕대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보살의 턱 모양이 완전히 별도의 호형의 선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턱의 양쪽을 잘록 들어가게 그린 점이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턱의 양식과 같아 공민왕대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광배의 표현에 있어서 두광은 파상문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며, 신광은 세 개의 집선문을 간격을 두고 그린 점은 우왕 11년(138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사경변상화양식과 같아 이 사경은 공민왕에서 우왕대로 그 년대를 추정할 수 있다.

3.15 來蘇寺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8권

백지묵서, 절첩본, 35.2cm × 11.9cm, 변상화 백지금니, 25.9cm × 47.8cm.



이 사경변상화는 다른 사경과는 달리 변상화 옆에 쓰이는 표제는 묵서로 쓰여 있다.

화엄경 8권본의 내용인 여래와 보살들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고려의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변상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던 변상

화 안에 장방형의 네모를 만들어 각 권의 품명을 적은 명찰이 보이지 않는다.

문양대의 금강저 양식이나 지운문 양식이 조선 태종 15년(1415)에 제작된 백지묵서의 내소사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3개의 운문을 퇴산자 형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고 그 위에 여백을 두고 곡선묘의 테두리를 그리고, 다시 여백을 두고 테두리를 그리는 양식이라든지, 문양대의 금강저 양식은 삼도가 가운데로 모이고, 그 아래쪽으로 갈고리형의 고를 양쪽으로 그리고 다시 그 아래쪽에 입식의 화문을 그리고 있는 점과 가운데 원화의 네 구석에 원문을 그린 점이 내소사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동그스름한 여래의 佛顔도 내소사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에 상통하는 점이 있어 조선 초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4. 년대 불확실한 기타사경변상화

4.1 호암미술관 소장 「범망경보살계품(梵網經菩薩戒品)」

감지은자, 절첩본, 17.6cm × 6.7cm, 변상화 감지금니, 12.3cm × 26.7cm.



이 「범망경보살계품」은 내표제에 「범망경보살계품서(梵網經菩薩戒品序)」라

고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원제목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이다.

변상화는 3구의 여래 중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보살형의 불존이 노사나불이다. 양쪽의 여래는 수백억의 석가를 상징하여 여래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변상화에 쓰여진 표제와 가장자리의 문양대는 은니로 그려져 있으나, 변상은 금니로 그려져 있고 聖衆은 보관을 쓰지 않은 여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양대의 특징으로 보아 충숙왕 복위년간에 제작된 두 작품인 충숙왕 복위 3년(1334) 호림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충숙왕 복위 6년(1337) 호암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과 같아, 충숙왕 복위년간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 적어도 충숙왕 복위년간 이후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양대 안팎으로 세선·태선-세선 태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혜왕 이전의 작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향좌에 있는 여래의 턱이 양쪽으로 잘록하게 들어 간 점이라든가, 정면향 여래형 聖衆의 佛顔이 도화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은, 공민왕 2년(1353)에 제작된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 「묘법연화경」 7권 본 1부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충숙왕 복위년간으로부터 공민왕대로 제작 년대를 넓게 잡을 수밖에 없다.

4.2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범망보살계경법합부(梵網菩薩戒經法合部)」

감지은자, 질첩본, 26.4cm × 9.8cm, 변상화 감지금니, 17.3cm × 39.3cm.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범망보살계경범합부」는 역시 내표제에 「범망경보살계품서(梵網經菩薩戒品序)」라고 기록되고 있다.

변상화도 3구의 여래가 보살, 신중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부분의 보살중이 보관을 쓰지 않은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경변상화는 가장자리 문양대의 금강저 양식이 충숙왕 복위 3년(1334) 호림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변상화와 충숙왕 복위 6년(1337) 호암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 변상화의 양식을 따르고 있고, 가장자리의 문양대에서 문양을 감싸고 있는 안팎의 윤곽선을 금니로 태선·세선-세선·태선·세선으로 그리고 있어, 충혜왕 復位元年(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변상화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운문도 4개의 구름이 한 덩어리로 엉겨 붙어 있는 형상으로 운문 주변에 여백을 두고 가장자리에 태선을 두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충혜왕대 혹은 공민왕대까지 년대를 내려 잡을 수도 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볼 때, 년대 불확실한 사경 중에는 년대를 추정하기 어려운 호암미술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이나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과 같이 사경변상화만으로는 년대 추정이 어려운 사경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경변상화의 양식으로서 충분히 년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к с і